

‘슈퍼스타’ 김도영, KBO 리그 MVP 등극할까

26일 2024 KBO 시상식 거행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
확도규는 KBO 신인상 도전장
수비상도 KIA 17명 이름 올려

올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프로야구 시상식이 오는 26일 개최된다.

프로야구 팬들은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에서 몇 명의 트로피 주인공이 나올지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MVP에 도전장을 낸 내야수 김도영과 신인상을 노리는 투수 확도규의 수상 여부다.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은 퓨처스리그 개인상으로 시작된다. 퓨처스리그 개인상은 남부리그와 북부리그로 나눠 평균자책점상과 승리상(이상 투수), 타율상, 홈런상, 타점상(이상 타자)을 수여한다.

이어 평균자책점상과 세이브상, 홀드상, 승리상, 승률상, 탈삼진상(이상 투

수), 타율상, 타점상, 득점상, 출루율상, 홈런상, 도루상, 안타상, 장타율상(이상 타자) 등 KBO 리그 개인상과 KBO 심판상, KBO 수비상을 시상한 뒤 KBO 신인상과 KBO 리그 MVP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올 시즌 가장 우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에는 김도영이 도전장을 냈다.

김도영은 팀 동료인 제임스 네일과 정해영을 비롯해 원태인, 구자욱(이상 삼성), 오스틴 딘, 홍창기(이상 LG), 객빈, 조수행(이상 두산), 박영현, 멜 로하스 주니어(이상 KT), 노경은, 길레르모 에레디아, 최정(이상 SSG), 빅터 레이에스(롯데), 카일 하트, 맷 데이비슨(이상 NC), 아리엘 후라도(키움)와 경쟁한다. 김도영은 올 시즌 대기록 퍼레이드를 이끌어내는 등 역대급 활약을 선보인 만큼 MVP 후보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그는 올 시즌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다.

또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

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최연소·최소 타석 내추럴 히트 포 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최연소·최소 경기 100득점, 30홈런-30도루,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타이거즈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김도영이 올 시즌 생산한 143득점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고, 대기록 퍼레이드의 피날레는 3할 타율과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퀀터폴 트리플이었다.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에는 확도규가 도전한다. 김택연과 최지강(이상 두산), 조병현, 정준재(이상 SSG), 황영목(한화)과 경쟁하는 확도규는 올 시즌 71경기에서 55.2이닝을 소화하는 등 KIA의 필승조로 자리매김하며 4승 2패 16홀드 2세이브와 평균자책점 3.56을 기록했다.

수비상 후보로는 양현종과 네일, 황동하, 윤영철, 장현식, 김도현, 전상현, 확도규, 정해영(이상 투수), 김태균, 한준수(이상 포수), 이우성(1루수), 김선빈(2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

수), 소크라테스브리토(좌익수), 최원준(중견수)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유격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된 박찬호는 2년 연속 주인공을 노린다.

개인상은 정규시즌 기록에 따라 이미 주인공이 모두 가려진 가운데 KIA는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을 타이틀 홀더로 배출했다. 김도영은 득점과 장타율 부문에서 선두에 오르며 올 시즌 KBO 리그의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고 네일은 평균자책점, 정해영은 세이브에서 타이틀을 차지했다.

한규빈 기자

▶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달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7회말 2사 2루에서 뺨기타를 때린 뒤 포효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7연패’ 페퍼저축은행, 돌풍의 기운 받을까

오늘 한국도로공사와 홈경기
시구 등 광주FC와 교류 행사



7연패에 빠지며 최악의 추락 위기에 놓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이웃 구단’ 광주FC의 기운을 받아 반등에 도전한다.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1 3위, 올 시즌 6연패 탈출의 기운을 지닌 만큼 페퍼저축은행의 분위기 반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페퍼저축은행은 22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3차전에서 광주FC와 스포츠 교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스포츠 교류는 앞서 페퍼저축은행 선수단 전원이 지난해 9월 먼저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아 승리 기원 시축과 함께 관중들에 사인볼을 선물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광주FC를 응원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나란히 염주체육단지에 등지를 들고 있는 페퍼저축은행과 광주FC는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은 개막전 승리 후 내리 7연패를 당하며 올 시즌 1승 7패(승점 4)로 6위에 머무르고 있다. 최하위인 GS칼텍스(1승 7패·승점 4)와 승점과 승리 모두 동률이나 세트 득실률에서 간신히 앞서 있는 만큼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FC는 공격수 정지훈과 허을, 수비수 조성권과 변준수가 승리 기원 시구에 나선 뒤 관중들에게는 사인볼을 선물한다.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창단 후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진출했고, 올 시즌 초반에는 6연패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기운을 전달하며 선전도 응원할 계획이다.

광주FC 공격수 허을은 “같은 광주연고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을 항상 응원하고 있었다”며 “직접 시구를 할 수 있게 돼 설렌다. 광주FC 팬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체육회 ‘제3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광주시체육회는 23-24일 광주 일원에서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시민들에 건전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5개 구 체육 동호인들과 다문화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해 9개 종목에서 함께 어울린다.

특히 다문화 가족과 전 연령의 시민들이 참가해 온 광주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생활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삶의 질 향상도 목표한다.

대회 1일차인 23일에는 사전 경기로 검

도와 야구, 축구 등 3개 종목이 펼쳐진다. 이어 2일차인 24일 오전 11시에는 개회식이 거행되고 한마을 계주와 단체 줄넘기, 계란 릴레이, 장기자랑, 슈퍼볼 굴리기 계주, 풍선 기동 릴레이 등 6개 종목이 이어진다.

개회식에는 광주 대표 줄넘기 선수단과 에어로빅 선수단이 참석해 시연을 펼친다. 또 메인 경기장인 빛고을체육관에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기 위한 포토존과 체험 부스를 조성하고 5개 구 가족센터와 시민체력증진센터, 협약 병원에서 도 부스를 운영한다. 한규빈 기자



광주FC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최종전을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잔류를 확정지은 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잔류 확정’ 광주FC, 올 시즌 유종의 미 노린다

24일 홈서 전북과 최종전
결과 따라 최종 순위 결정



1부리그 잔류 전쟁의 승리가 된 광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승강 플레이오프 출전이 확정된 전북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도전한다. 승패에 따라 최종 순위 변동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높은 순위를 올 시즌을 마칠 것이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최종전(38라운드)을 치른다. 지난 라운드까지 올 시즌 14승 4무 19패(승점 46)를 기록한 광주는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 전북(10승 11무 16패·승점 41)과 5점 차를 유지하며 최종라운드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9위로 잔류를 확정지었다.

잔류가 확정됐지만 광주의 최종 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7위 제주유나이티드(15승 4무 18패·승점 49)와 3점, 9위 대전하나시티즌(11승 12무 14패·승점 45)과 1점 차로 변동 가능성이 충분하다.

광주는 승리를 노리는 동시에 로테이션 가동으로 체력을 안배할 전망이다. A매치 휴식기를 가지며 약 2주간 체력을 충전한 상황인긴 하나 최종 라운드를 치르고 사흘 뒤인 27일에는 상하이 선화화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차전이 예정되어 있다.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올 시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자원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A매치 휴식기 중 열린 선문대와 연습경기에서는 5-0 대승을 거둔 가운데 신창무와 안혁주, 하승운, 허을, 김진호가 고른 득점포를 가동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김한길도 도움을 올리며 감각이 되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측면에서 김한길이 존

재감을 발휘한다면 자시르 아사니와 최경록 등에게 휴식을 부여하더라도 날카로운 공격을 구축할 수 있다.

젊은 피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22세 이하 자원인 정지훈과 문민서, 안혁주, 김운호 등이 평소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오후성과 정지용 등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베테랑들도 힘을 보탠다. 이상기와 이은범 등 측면 수비 자원들이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예열을 마쳤고, 부상에서 최근 전력에 복귀한 두현석의 복귀전 여부도 기대를 모은다.

한편 광주는 시즌 최종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1번 게이트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오월첫동네’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장터가 개최되고 ‘짹짹’과 협업한 포토카드 키오스크를 운영해 팬들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규빈 기자